

10. 성령님도 못말리는 사도 바울 / 김종윤 목사

본문	사도행전 20:23-24, 21:4, 21:10-13	주제/사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 사명
문제제기	<p>▶ 바울... 성령님이 세 차례 (아니 그 이상 / 각 성에서 알려주셨으므로...) 녀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셨음에도...</p> <p>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하는가?</p> <p>이는 불순종 아닌가?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아닌가?</p> <p>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 구절(행20:24, 21:13)들.. 이 엄청난 '사명감'도 성령님 보다는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p> <p><문제제기></p> <p>목사님! 궁금합니다.</p> <p>선교 파송 때 늘 인용되는 이 구절들... 다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달려가야만 하나요? 성령님이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p> <p>바울의 이 '불순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p>		
설교	<p>✓ 아름다운 불순종도 있는 법!</p> <p>✓ 아름다운 불순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 - 바울이 불순종한 근본 이유가 자기 욕심이나 비신앙 때문이 아니었다. -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열정과 긍휼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울은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p>✓또한 '죽기까지 가리라'는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도와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p> <p>마태복음 16:24-25</p> <p>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p> <p>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p> <p>과연 우리에게 (바울이 가진) “주님이 말리지 못한 참 된 열정”이 있는가?</p>		

불순종 하면서 순종하기. . .

사도행전 20장 23-24/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4절/

4.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10-15절.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분별이 참 힘이 됩니다.

오늘까지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깊고 높으며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세 군데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불순종처럼 보이는 일로 인해 사역이 어그러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반대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길을 막는 일들이 단순한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 .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가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순종이나 불순종이나'는 명령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전적인 우리의 의지로 행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20장 23-24절을 보겠습니다.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은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바울의 앞날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사도바울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똑 같은 일을 하지만 억지로 밀려서 할 수도 있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 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령님께서 사도바울의 앞날에 펼쳐질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도록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24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합니다.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거듭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여기까지 사명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생명을 내어 놓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도바울의 불순종이 아니라, '찢순종'이 아닐까요?

결국, 성령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응답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죠.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목숨을 걸고 밀정을 파견해야 하는 순간에, 대장이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길을 간다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네, 어쩌면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네. 그러니 이쯤해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나?"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돌려보내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파견하는 이 밀정이 너무 귀한 사람이기에, 그의 생명과 노력이 너무 귀하기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존중'의 의미로 들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불순종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4.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부분역시 사도바울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사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바울의 앞날에 닥칠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바울의 전도여정이 마지막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 '예루살렘'은 꼭 거쳐 가야 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사도바울이 가야하는 여정들이 아니었을까요?

'불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여정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

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분명 사도바울의 미래에 펼쳐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박해를 당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박해를 피해 도망했던 곳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박해를 피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이지요. 아직 사도바울이 박해를 받고 죽기에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해석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바울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도바울을 위해 피할 길을 내도록 조언하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조언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것을 제자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밤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히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모습보다, 왜 화를 내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 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해 우리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가오니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해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을 내며 ‘prologue’에 썼던 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한국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위선자야!’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무감각하게 씌어졌을 상처에 아픈 ‘복음의 약’을 뿌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감동’도 사실은 다음 5-6절을 보면, ‘사명의 다짐’으로 사도바울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바닷가’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서로 헤어져 작별을 구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상상인데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 째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10장 10-13절.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는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바울의 일행에게 찾아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리고 아가보가 말한 대로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을 가로막는 청원이 더욱 계세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사도바울의 일행이 합심하여 사도바울의 마음을 흔들여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바울의 굳건한 마지막 결심을 확신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13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14-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제 더 이상 사도바울을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를 말리려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결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고난과 핍박의 예언들이 사도바울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안전을 선택했더라면. . .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까지 불순종, 혹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들, 즉 여러 차례 계속된 제자들과 지인들의 ‘권함’이 주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would not be dissuaded, we gave up and said, "The Lord's will be done."

우리 말 성경에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득되지 않으므로’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dissuaded’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persuade (someone) not to take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그러니, *When he would not be dissuaded*, 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쳤노라’라는 부분이 ‘we gave up’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고 나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 *"The Lord's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인가요?

제자들과 사도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The Lord's will be done."

사도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자 결심했을 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안전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
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참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핍박이 너무 크기에 점진적으로 사도바울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사도바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도바
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의 크기'가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